

5) Feeding Problem(授乳 문제) [3]

3) 우식 치아 문제

유치는 저작 기관으로써 뿐만 아니라 장차 영구치가 봉출 할 자리를 확보하여 대합치가 적당한 occlusal level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유전치가 빈번히 조기 탈락함으로써 상, 하악 양측 치열궁의 길이가 부족해지면 이미 봉출 된 영구 전치들의 배열을 위해 보다 많은 간격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1).

이러한 형태의 조기 탈락은 종종 유치의 발치에 대한 지침과 장차 제 1 소구치를 제거하는 가능성이 실마리가 된다. 우식 치아로 인해 유구치의 조기 상실을 가져 왔다면 적절한 보격 장치를 해 줌으로써 부정 교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정에 없는 한개 혹은 그 이상의 치아 상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예정표와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합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

상악이나 하악의 전치부에 있어서 유치의 간격 유지는 정상 교합에 있어 좀처럼 필요치 않다. 성장 발육과 정에서 인접 치아의 mesial drifting은 최소한이다.

정상 교합이라 할지라도 제 1 유구치나 제 2 유구치의 탈락은 거의 항상 영향을 주는 문제이다. 유전치, 제 1, 제 2 유구치 근원심 폭경의 합은 계승 되는 영구치의 그것 보다 양측에서 평균 1.7mm정도 크다. 상악궁에서는 이러한 "Leeway" space가 0.9mm 밖에 안된다. 이러한 space의 차이는 교합 조정과 incisors의 최종 적 배열을 하는데 필요하다. 제 2 유구치의 조기 발거는 제 1 대구치의 mesial drift를 가져오고 봉출 할 제 2 소구치에 방해가 된다.(그림 2)

실사 제 2 소구치가 봉출 되었다 하더라도 협착 또는 설측으로 치우쳐 부정교합 상태가 된다. 상악 구치가 mesial로 drift 될 때는 그것은 종종 근심 협착 교두가 설측으로 이동하면서 회전하며 치아는 기울어 진다(그림 3).

하악궁에 있어서 제 1 대구치는 회전을 덜 하나 봉출 되지 않은 제 2 소구치를 가로질러 빈번히 기울어 진다. 제 1 대구치의 mesial drifting과 tipping은 항상 일어 나지는 않는다. 만일 교합이 "locked" 되어 있고 봉출 할 계승치를 위한 space가 아주 적당하다면 조기 발거 된 유구치부의 space가 폐쇄 되는 경향은 적다.

치과 의사가 유치의 해부학적으로 올바른 수복물에 의해 예정 된 시간표를 유지하고 성장 pattern과 조화를 이루는 원래 상태의 치궁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의무이다. 만일 뒤에 이를 과정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마땅히 교정의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교정의와의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빈번히 이용 되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영구치의 조기 상실은 "malocclusion maker"로써 유치의 상실보다 더 심각히 고려 되어야 한다.

많은 아동에 있어서 치과의 인식 부족과 우식의 맹공격으로 제 1 대구치를 상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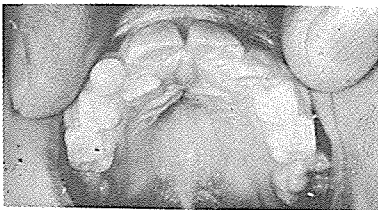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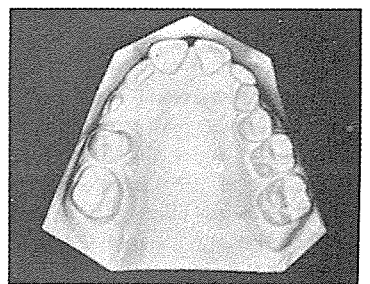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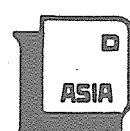


그림 3



**ASIA
DENTAL
LAB.**



서울특별시 인정 제12호

아세아치과기공소

대표 이 홍 규

서울 종로구 종로 5 가 115 번지
☎ (763) 8559 · 7518